



트럼프

# 美 대선 ‘진흙탕 싸움’

“1993년 측근 자살 사건 수상쩍다”

트럼프, 타살 의혹 제기

성폭행 관련 동영상도 공개

힐러리측 “무모한 네거티브” 일축



힐러리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3일(현지시간) 경쟁자인 민주당 주자 힐러리 클린턴 부부 측근 인사의 자살 사건이 “수상쩍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클린턴 전 장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폭행’ 주장이 담긴 영상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과거 부동산개발 사기사건인 ‘화이트워터 게이트’와 관련해 떠도는 클린턴 부부의 살해 음모론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트럼프가 ‘추잡한 대선’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인 빈센트 포스터의 1993년 자살이 “매우 수상쩍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논의할 만큼 많이 알지못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사건이 명백한 타살이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터는 그해 7월20일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특별검사는 그의 죽음을 ‘업무 중압감에 따른 권총 자살’로 결론냈다. 아칸소의 로즈 법률회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포스터는 당시 ‘화이트워터 게이트’의 업무를 다루고 있었다.

이 게이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였던 시절 부인 힐러리의 친구인 제임스 맥두걸 부부와 함께 설립한 부동산개발 회사 ‘화이트워터’의 휴양단지 개발을 둘러싼 사기, 직권남용 등 의혹이다. 1992년 언론에 보도됐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다가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화이트워터 게이트’ 업무를 처리하던 백악관 법률고문인 포스터가 숨진 채 발견되며 파문이 일었다.

숨진 포스터는 아칸소의 로즈 법률회사에서 힐러리와 근무했으며, 백악관에 들

어와서는 화이트워터 사건을 담당했다. 힐러리는 당시 그에게 서류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클린턴 부부는 정문회에 썼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극우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 떠도는 이 소문의 정점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어제 포스터의 자살 사건을 들고나왔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23일 후안타타 브로트릭과 캐슬린 윌리 등 2명의 여성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욕성이 담긴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공개했다. 브로트릭은 1978년 한 호텔에서 당시 아칸소 주 법무장관이던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윌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백악관 집무실 쪽 복도에서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

한 여성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언론도 그간 이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 영상에서 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욕성이 흘러나오는 동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시가를 물고 있다.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의 사진과 그녀의 큰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WP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힐러리 측이 나에게 매우 추잡한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 계입을 정말 하고싶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나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가 빌 클린턴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1990년대 가장 추했던 정치적 장면을 부활시키고 있다”며 “대선 레이스가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두 후보의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2년만에 입산 재개된 에베레스트 등반객 몰려...나홀 연속 사망사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에서 나홀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에베레스트는 2014년 산사태와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지난 2년간 사실상 입산이 금지돼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등반객이 대거 몰리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에베레스트 정상 150m 지점에서 현지 가이드 프르바 세르파(25)가 등산로를 손보던 중 추락해 숨졌다. 이틀만인 20일에는 네팔란드 국적의 에릭 아널드(36)가 하산 중 사망했다. 트라이에 슬론 선수인 아널드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5차례 시도 끝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으나, 그날 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호주 여성 마리아 스트리덤이 목숨을 잃었다.

재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2일에는 인도 국적의 수브하시 폴(44)이 제2 베이스캠프에서 역시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 숨졌다. 같은 팀이었던 인도 산악인 2명은 실종돼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고산등반업체 관계자인 왕추 세르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날씨가 갑작스럽게 악

화해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에베레스트 등정 산악인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세링 네팔 등반협회 회장은 “(2014년 산사태와 2015년 대지진 등) 앞서 두 차례의 참사는 자연현상이었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면서 “이것은 팀을 잘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산악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에베레스트에서는 2014년 산사태로 세르파 16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5년에는 네팔 대지진으로 베이스캠프에서 산악인 19명이 사망해 지난 2년간 사실상 입산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 탓에 올해 등반 시즌이 재개되자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산악인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조래됐다. 등반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급한 마음에 충분한 준비 없이 정상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 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 대비 美공군 지진파 탐지 기술 개발

미국 공군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파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선 전방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 공군은 즉각 특수정찰기를 띄워 한반도 상공의 방사능 물질을 탐지·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지진파 탐지를 위한 역량 개발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는 23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미국 공군의 지진파 탐지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핵확산 위협에 주목한다”며 “미국 공군 연구소의 지진파 기술 프로그램은 핵 활동을 탐지하고 감시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군사위는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이 같은 기술개발 프로그램 예산에 750만 달러(한화 89억 원 상당)를 배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성 예산으로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프랑스 노동법 파업에...문 닫은 주유소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IT)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프랑스 내 정유공장 8곳 모두가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유공장 가동 중단과 봉쇄로 프랑스 주유소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기름이 아예 바닥났거나 부족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IT)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프랑스 내 정유공장 8곳 모두가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유공장 가동 중단과 봉쇄로 프랑스 주유소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기름이 아예 바닥났거나 부족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 日 ‘협한시위 억제법’ 제정

중의원 통과...금지 규정·벌칙 없어 실효성 의문

일본에서 ‘협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협한 시위와 같은 행동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협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반면, 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 제정을 촉구해온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재일민단)은 이날 오후에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무제한적인 헤이트스피치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을 바꾸어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큰 한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법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재일민단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데다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본 국내의 수많은 소수자를 제외했기에 보편적인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